

장흥군, 남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열어 '일손부족 해소'

북부권에 이어 남부권 임대사업소 운영해

가을철 농번기 앞두고 농가에 큰 도움 될 듯

장흥군이 농촌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남부권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새로 설치하고 지난 9월28일 운영을 시작했다. 관산읍 외동리에 들어선 남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국비를 포함해 총

2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5,031㎡ 규모의 부지에 조성된 임대사업소는 격납고 540㎡, 정비실 192㎡ 등의 시설을 갖추고, 농용굴삭기, 퇴비살포기, 쟁기, 수확기 등 62종 147대의 임대 농업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사업소 내에는 관산읍농업상담소를 함께 설치해 농업인의 접근성을 높였다.

남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가 개소에 따라 그동안 장흥 본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해야 했던 안양, 용산, 관산, 대덕, 회진 지역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농업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받고 있다.

장흥군은 2016년 농업기계를 시작한 이후 총 195대의 농업기계를 보유하고 지난해 1,204건의 임대실적을 기

록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고가의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비용을 줄이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시설로 농가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가는 사전에 전화로 임대사업소를 방문해 농업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방법 및 안전교육을 받은 후 임대가 가능하다.

단, 처음 이용하는 농업인은 직접 방문하여 회원가입 후 전화 예약이 가능하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가을철 농번기를 앞두고 남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개소하게 돼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의 여파로 어

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임대료 50% 감면을 올해까지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강진군, 3년 연속 일자리대상 최우수상 수상

인센티브 1억...신규일자리사업 재투자



강진군이 지난 9월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부상으로 1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3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은 전국 군단위로는 최초로 고 전국 지자체에서는 수원시에 이어 2번째이다.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2012년부터 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노력 및 성과를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다.

또한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단체장의 일자리 창출 의지,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도, 일자리 대책의

지역 적합성과 창의성, 일자리 질 개선 등의 항목을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1차 서면평가와 2차 중앙평가를 거쳐 일자리공시제 및 사업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시상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한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철저한 방역수칙 하에 진행됐으며 정세균 국무총리, 임서정 고용노동부차관, 최우수상 수상 지방자치단체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강진군은 2018년 16.4%에 불과하

던 강진산업단지 분양률을 100%로 급상승시키며 일자리 창출의 장기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가우도 민간투자유치를 통한 관광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 산업단지 취업박람회 개최 등 지역 현황에 맞춘 일자리 정책 추진으로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상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많은 자치단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일자리 정책을 추진했으며 일자리 질 개선과 사회적 경제활성화에 괄목할만한 실적을 달성했다"며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일자리 사업 추진 일환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과 일자리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인센티브 1억 원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 그린뉴딜사업과 발맞춘 신규 일자리 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상식에 참가한 이숙영 강진군수는 "3년 연속 최우수상의 쾌거를 올린 것은 기업체와 강진군민들의 협력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강진군을 만들기 위해 시책 발굴 등 현장에서 뛰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완도군 "이색적인 선상 결혼식 주인공을 찾습니다"

코로나로 식 올리지 못한 주인공 오는 13일까지 접수



완도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 또는 개인 사정상 식을 올리지 못한 주인공들의 사연을 접수 받아 이색적인 선상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완도군은 다가오는 '2020 청정완도 가을 섬 여행' 기간 중 오는 24일 금요일

완도항 일원에서 선상 결혼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선상 결혼식의 가장 큰 매력은 바다에서 완도 야경을 바라보며 식을 진행하는 이국적인 분위기와 △장소 대관료가 무료 △시간에 쫓기지 않는 예식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원 자격은 △코로나로 결혼식이 취소·연기되었거나 △이색적인 결혼식을 꾸미는 분 △개인 사정상 식을 올리지 못한 분 △리마인드 웨딩을 원하는 분 등 어느 사연이든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오는 24일에 결혼이 가능한 분만 지원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지난 9월 29일 화요일부터 10월 13일 화요일까지이며, 완도군청 담당자와 전화 인터뷰(061-550-5431)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주인공에게는 웨딩 공간 제공, 사회자 포함 예식 진행, 축하공연, 웨딩카 서비스, 관내 고급 리조트 1박 2일 숙박권을 제공한다.

다만 예복과 헤어·메이크업, 청첩장, 사진, 음식 등은 당사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고 100명 이하 최소한의 가족과 친척, 지인만 참석하고 참석하지 못한 하객들을 위해서 유튜브로 현장을 생중계할 예정이다.

완도=김광수기자

완도군, 코레일관광개발(주)과 업무 협약 체결

특산물 판로 확대·양 기관 관심 분야 상호 협력

완도군은 지난 9월28일 동반 성장을 위해 코레일관광개발(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협약은 코레일관광개발이 코로나

19, 태풍 등으로 수산물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완도군 어업인을 위해 코레일 직원 1,300여 명의 한가위 선물로 완도군 특산품을 구입하게 되면서 추진됐다.

완도군과 코레일관광개발은 협약

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완도군의 특산물 판로 확대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관심 분야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완도군수는 "앞으로 상호 협력하여 더 많은 시너지를 발휘하는 아름다운 동행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기자

해남군 "지역 성장 100년 먹거리를 찾아라"

해남군은 지난 9월25일 2022년도 국고건의 및 중장기 전략사업 발굴 보고회를 갖고,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국고 확보에 돌입했다.

2022년 해남군 국고지원 요청 사업은 신규 및 계속사업 155건, 6,317억원 규모로, 지역 발전을 견인할 다양한 신규사업 96건이 대거 발굴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해남군은 성장 동력이 될 중장기 전략사업을 중앙부처 현안

사업으로 신규 발굴해 예산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정책이 부합하고, 해남의 비교우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기관 및 국가사업 지역유치, 해남형 뉴딜사업, 대규모 국가SOC사업, 농축어업의 지속적 성장 토대가 될 사업 등을 중점 발굴해 국고 예산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25일 발굴보고회를 통해 각 실

과소별 사업들의 세부 현황과 추진 계획등이 논의된 가운데 새롭게 발굴된 주요 신규사업은 재난안전 체험관 건립사업(120억원), 기후변화 국립농업연구단지 조성(1,385억원), 어란전 국가어항 확장사업(500억원), 가정간편식 통합센터 조성(50억원), 식품특화단지 제2지구 폐수중립 처리시설(70억원),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사업(79억원) 등이다.

기동취재본부

책과 함께 슬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